

장르문학 (버디물, 판타지) 출품작

베타 콤플렉스

인간 모지원은 마키의 세 번째 주인이다. 첫 번째 주인과는 열여섯에 계약해 스물하나가 되었을 때 작별했다. 그가 딱 성인이 되었을 때쯤엔 술 먹고 기절한 거 데리러 가고, 절체절명의 일탈을 붙잡아내며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은퇴를 고민한 적도 있었다. 센터 측에서 마키의 은퇴를 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매칭해준 두 번째 주인은 이제 막 아홉 살이 된 여자아이였다. 마키는 양 갈래로 머리를 땀은 주인의 손에 붙잡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자주 뜨는 최신 유행 메이크업의 모델이 되어야 했다. 십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두 명의 주인을 보필하며 마키는 인간 기준 열여덟의 나이에 인간 세상을 속성으로 익혔다.

마키가 생산되고 십여 년을 자란 곳이기도 한 그의 집은 커다란 통창이 줄지어 이어진 거대한 건물이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신생아실인 기묘한 공간. 그 흔한 간판이나 전광판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는 내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야 [수호신 연구소 / 소원 수리 센터]라는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마키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호신들(그러나 능력이 엄청 비범하지는 않고 다소 얼굴로 승부 보는 경향이 있는)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인간이 그렇듯 완벽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그걸 잘 알아서 더욱 의욕적으로 주인의 삶에 개입하려 했다.

수호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

신의 베타 버전이란 거야. 대단하게 생겼는데 그만한 얼굴값은 못하는 거.

그들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그랬다. 펑펑하고 건조한 잿빛 인간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백마 탄 왕자, 한 줄기 무지갯빛, 그런 거. 그래서 일부러 용이나 유니콘이나, 있지도 않은 허상의 것들을 베껴 만들었고. 어쨌거나 마키는 만족했다. 예쁘니까. 커다랗고 유연한 푸른색 용 한 마리로 만들어져 쉽게 선택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잘 살았으니까. 잘빠진 비늘과 지느러미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고객들의 눈길은 언제나 새롭고 짜릿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원은 마키의 세 번째 주인이고, 동시에 마키가 회상했을 때 가장 좋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소원을 자주 빌지 않았고, 오히려 바라는 건 마키가 집에 가만히 남아있는 게 다인 사람이었다. 외로운 게 어색한지 마키에게 자주 말을 걸었고 덕분에 주인과 수호신 관계보다는 더 친해졌다. 친구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땐 혹시 모지원 백수야? 하고 물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백수와 더 가까운 건 마키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원이 백수가 되려면 한순간에 알바 세 군데에서 잘려야 하고 한시 빨리 졸업을 해야 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취업 면접이 장렬하게 망해야 한다. 그러나 마키가 백수가 되는 방법은 지원이 소원을 빌지 않는 것 하나뿐이다. 적반하장이라며 역으로 디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착한 모지원은 그러는 대신 마키의 일거리를만 들어주었다. 소소하게 설거지를 하지 않거나 먹던 감자칩을 흘리거나 하는 거. 자신이 수호신인지 보모인지 마키가 혼란스러워할 때쯤 지원은 거실에 화분 몇 개를 두었다.

이 거리가 공기가 안 좋아. 식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혼자라서 엄두가 안 났어.

안 죽게 잘 지켜줘. 할 수 있지?

지원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높낮이가 없고 조용하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도 잘만 들리는지. 죽은 눈으로 체리 몰딩의 마룻

바닥을 닦던 마키의 허벅다리에서 우두둑 푸른 비늘이 돋았다. 이걸 소름 끼치게 좋다는 뜻. 지원을 쳐다보면 그도 이해했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용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 쪽팔려서 말로 옮기지는 않았다. 아무리 수호신이라도 성인 되려면 일 년하고도 조금 더 남았다. 멋이라는 걸 한창 지키고 싶을 나이니까.

사실 마키가 왜 이렇게까지 멋, 가오, 반짝이는 것에 집착하느냐. 비단 나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명칭이 좀 휘황찬란하고 있어 보일 뿐 사실 수호신이란 게 별거 없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비는 소원은 로또 당첨 수능 만점 기타 등등인데 수호신은 발로 뛰거나 그건 안 된다고 말로 설득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능력이라 해봐야 공중을 둥둥, 아니면 뿡 하고 변신. 첫 번째 주인이 빌었던 '경영 존잘 선배랑 사귀게 해주세요' 소원 이뤄주느라 인터넷 소설 남주인공의 첫사랑 전용 특수효과마냥 벚꽃잎 뿌려주던 날들...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 끼쳤다. 마키는 가능한, 점잖은 방식으로, 쓸모 있는 수호신이 되고 싶었다.

이거 소원이야? 두 시간 동안 인터넷 검색해 가며 좋다는 식물 영양제를 찾아 구입하고 이젠 나무위키에 고무나무를 검색해 공부하던 마키가 물었다. 지원은 3초 정도 고민하다가 끄덕였다. 솔직히 소원 갈취한 거나 다름없어서 찜찜하긴 했다. 그러나 지원은 오히려 짐 하나 덜어낸 듯 후련한 얼굴이어서 굽힌 마음을 쉽게 떨쳐낼 수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식물 공부를 하는 마키를 지원은 뿌듯해 했다. 딸 키우는 것 같다며 좋아하기도 했다. 지금 사귀는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라도 있나. 일부러 똥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빠르게 뚱뚱해지고 취소. 본격도 없는 사람 미워하고 보는 건 수호신의 자질에 어긋난다. 또 멋 잃어버릴 뻔했어.

마키는 바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하릴없이 길 걷는 것을 더욱 즐기는 편이었다. 거리에는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주려, 또는 신원불명의 주인을 찾으려 어딘가를 헤집는 여러 수호신이 있었다. 동류의 것들과 섞이는 행위는 다정한 인간과의 동거와는 다른 의미의 편안함을 선사했다. 이런 순간은 꼭 필요하다. 인간과 너무 오래 어울리다 보면 인간이 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을 나누고 몸이 닿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미 인간이라고 착각한다거나. 무엇보다 마키는 과하게 누군가의 삶과 사연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마키는 지원이 흔하지 않게 소원을 빌어 밖으로 나온 참이었다. 지원의 본가가 있는 서산에 갔다 돌아오는 데에만 왕복 이틀이 걸렸고, 지원의 어머니가 면세 딱지 붙은 향수 박스를 뜯는 걸 전부 확인하느라 3일째 밤이 거의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을 쓰는 전문 분야가 있다. 지원의 전문 분야가 제 가족이라는 걸 그 소원을 이뤄주며 알았고, 역시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나 지레짐작이었지만. 확신하는 건 쉬우니까.

발을 들인 거실이 깜깜했다. 현관에는 낫선 컨버스하이가 놓여 있고 지원은 안방을 내버려두고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 온통 흩뿌려진 흙과 반투명한 플라스틱 자갈들. 마키의 허리 높이 정도로 자란 고무나무가 뿌리를 흰히 드러낸 채 쓰러져있었다. 모든 게 무방비한 공간에서 굳게 닫힌 것은 지원의 방문뿐이었다. 문 앞에 나뒹구는 길이 다른 짹짹 양말. 적막한 공간에 어색하게 흐르는 복숭아 향수 냄새. 마키는 주제도 모르고 인간을 죽이고 싶어졌으나 그 대상을 알 수 없었다. 힘줄이 돋은 손으로 고무나무 뿌리를 잡고 들어올렸다. 마키가 화분을 치우는 소리에 반쯤 깬 지원이 술주정처럼 중얼거렸다. 난 이제 혼자야...

“여자 친구랑 싸웠어?”

“...응. 헤어지기로 했어.”

지원은 숙취를 견디지 못해 생수병을 찾다 말고 마키를 불렀다. 마키는 이미 냉장고에 있던 반

남은 물병을 꺼내 뚜껑까지 딴 채 기다리던 참에 지원의 입이 한 번 더 열렸다. 너는 정말 뭐든지 들어줄 수 있어? 마키는 입술을 툭 내밀어 빠진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까진 못 되지만 발로 뛰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어리지만 영민하고 생각하는 회로가 매끈한 마키는 실적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센터에서는 그런 이유로 예쁨도 꽤 받았다. 실력과 패기는 비례한다고 했던가. 마키가 소원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뭐든지 일단 하겠다고 하고 보는 편.

할 수 없는 일 같은 건 없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깊은 사연을 알고 있으며 그를 이해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 온 힘을 다해서 해내려 하겠지.

“그럼 내 전 여친 좀 망하게 해주라.”

“.....”

“뭐든 좋아. 그냥, 개 인생이 쉽게 안 굴러갔음 좋겠어서.”

마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련하기도 해라. 지원의 눈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누가 전 애인 망하게 해달라는 말을 저렇게 마음을 써서 하는지. 어쩌면 지원의 소원에 의해 사사건건 계획이 뒤틀린 전 애인이 잔뜩 열받은 채 지원을 찾아올지도 모른다. 간밤에 그랬듯 거실을 싹 다 쑥대밭으로 만들겠지. 아마 그걸 바라는 걸지도 모른다. 제발 돌아와 달라는 말을 저주로 하는 미친놈은 또 처음 본다고 핀잔을 주려다 멈추었다. 우리들은 어리숙한 인간을 위해 존재하니까. 마키는 말끔히 치워진, 원래는 약 일 미터짜리 고무나무가 서 있던 곳을 쳐다보았다. 밤사이에 생긴 공백이 너무 많아서 버퍼링이 좀 걸렸다.

음, 그리고 화분 깨뜨린 건 미안해. 개가 원래 화가 나면 똥이 없는 게 없어지는 편이라. 새로 사줄게. 잠이 채 깨지도 않은 눈으로 온라인 쇼핑물을 뒤지는 지원을 막아섰다. 때로는 학습 없이도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수호신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것은 팔자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가능은 하지만,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화분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

이제부터 정말 바빠질 테니까.

있지, 비밀 하나 말해주자면 마키는 인간들 사이에 섞여드는 것이 삶의 낙이라 여기는 사람, 아니 수호신이다. 따끈한 복적임과 적당한 어수선함을 좋아하는 편이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보다 잘 살았을 거란 말 들은 적도 있었다. 과대 딱지 달고 아기들 이끌고 다닐 타입. 딱 그런 거. 물론 인간으로 뽕 변하기만 했다 하면 볼살 차오른 여고생 얼굴이 되는 탓에 대학생 코스프레까진 엄두를 내지 못했다만. 어쨌든 마키는 바깥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기를 좋아했다. 일부러 나가고 싶어서 지원에게 소원 하나 빌라고 뽕을 뜯어낸 전적도 꽤 화려했다.

그리고 비로소 찡찡거림 없이 지원이 먼저 내뱉은 소원 하나 때문에 마키는 최근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회사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 무리 틈을 유연하게 헤엄쳤다. 일 층에 낡은 세탁소 있는 빌라에서 우회전. 건물 다섯 개 지나쳤다가 빈티지 옷 가게 앞 횡단보도 건너기. 지원이 로드뷰까지 보여주며 가르친 길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찬찬히 되짚으며 나아갔다. 천재까진 아니어도 한 번 본 건 안 까먹는다.

“사진만 보고 진짜 갈 수 있겠어?”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미안한데 셔츠에서 담배 냄새 나.”

“미안. 내 건 아니고 헤, 아니, 여친, 이것도 아닌데.”

“됐으니까 그만 말해. 짜증 나 죽겠네, 진짜....”

“이제 냄새날 일 없을 거야.”

“내가 이 소원 이뤄주면 다시 나는 거 아냐?”

마키는 지원이 여친과 헤어진 이후 세상과 동떨어져 사회를 등지기를 결심한 히키코모리처럼 살 줄 알았으므로, 꽤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기꺼이 그 소원을 위해 발 바쁘게 움직였다. 때로는 용인 채로, 때로는 인간인 채로, 정말 가끔은 길고양이나 바퀴벌레나 쥐인 채로. 인간의 집에 멋대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지막 선택지가 편했지만 대신 죽음을 감수해야 하기에 자주 택하는 선택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원이 말해준 정보에 따르면 지원의 전 애인은 재택근무를 주로 하는 직업인데다 본래에도 굉장한 집순이라 들키지 않는 게 어려울 것이라 했다. 결국 거울을 보며 으윽, 성질을 부리면서도 바퀴벌레로 둔갑하는 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냥, 적당히야. 개가 더 이상 못 참고 도와줄 사람 찾을 때까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할 정도로만. 갠 너무 힘들면 그냥 다 놔버리고 말 아야. 알겠지?

원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무거나, 적당히, 그런 거다. 마키는 몇 번이나 강조하는 지원의 입을 틀어막으며 나 못 믿냐고 큰소리를 땡땡 쳤으나 현관문을 나서며 조금 막막해졌다. 적당히 괴롭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지원의 전 애인 집을 처음 찾아갔던 날, A4용지로 변해 현관문 틈을 비집고 주거침입에 성공하긴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번듯한 고등학생으로 다시 변신하여 거실을 몇 번 거닐어도 보고 그 전 애인이 자고 있을 안방 문을 힐끔 거리기도 했으나 당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날 누가 봐도 잔뜩 풀 죽은 얼굴로 돌아온 마키에게 지원은 혼잣말을 빙자한 힌트를 제공했다.

지원이 말했던 소원의 예시들은 전 애인에 대한 다소 찌질하고 사소한 저주에 가까웠다. 불행이긴 한데 말하자면 좀 사소하고 짜증 나는 것들. 아무리 힘줘도 생수병 뚜껑 잘 안 열리고, 술 퍼먹은 다음 날 배달 앱 켜서 해장국 시켰는데 주문 많아서 취소되고, 간만에 뽕 타서 한 페이지 반 썼는데 자동저장 누르기도 전에 파일 날아가고. 보통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마키가 개입해 이런 일을 벌이기는 쉽지 않았다. 마키는 보통 새벽부터 지원의 전 애인 집에 찾아가 쿠팡 택배 박스를 먼저 뜯고 생수병 60개의 뚜껑을 손수 째 잠그거나, 그가 자주 시켜 먹는다는 해장국집으로 날아가 모니터에 뜬 주문 알람을 지워버리거나 해야 했다. 마키에게도 이런 일들은 사소하고 짜증이 날 뿐 힘이 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젠 정말 직장이나 다름 바 없어진 전 애인 집으로 향하고 있던 이른 아침, 빌라 공동 현관까지 백 미터 남짓만을 남겨두고 있을 때쯤 아주 익숙하게 눈에 밝힌 전기 잠자리채(잠자리채와 매우 유사한 외관 때문에 지어진 별명. 주인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수호신을 포획할 때 사용한다)가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어라, 저 버젓이 주인이 있는 몸인데, 한껏 섭섭한 목소리로 항변하려고 입을 열었으나 심장 중심부까지 파고든 듯한 전기충격의 고통 때문에 나오는 것은 비명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허리춤에 달랑거려야 할 모래시계가 느껴지지 않았다. 학생에게는 명찰, 회사원에게는 사원증, 수호신에게는 모래시계. 그런 건데.

그 콩알만 한 모래시계 좀 놔두고 나올 수도 있지, 인간들은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나와도 뭐라 안 하면서 이러기야? 억울해서 수호신으로 살 수가 있어야지. 머릿속으로는 온갖 불평이 다 떠올랐지만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이미 마키는 뿔이 단단히 잡힌 채 웬 커다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요즘은 불우이웃 후원 광고에도 의식주 물품 제공이 아니라 쿡으

로 수호신 한 마리를 보내주는 세상이었다. 용과 유니콘이 거리를 배회했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량으로 제작되는 수호신은 해를 넘길수록 대중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 말인즉슨, 길에서 주인 없는 아무 수호신이나 잡아다가 보내버리는 시스템 따위가 사회에 만연했다는 뜻이다. 그건 수호신 사회에 길들여진 직장인들이 나름대로 고안해 낸 꼼수에 가까웠다.

어쨌거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호신들이 메고 다니는 모래시계는 수호신들의 구속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있는 수호신임을 말하는 증표의 역할도 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동시에 센터 배달원들의 꼼수를 뒤편에서도 어느 정도 감내해주고 있다는 일종의 증명이기도 했다. 말로만 들었지, 이런 근무 태만의 희생양이 된 것은 처음인데. 센터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트럭에서 내린 배달원들은 생각보다 더 뻔뻔했으며 꼼수를 행하는 몸짓이 상당히 숙련되어 보였다. 갑작스럽게 머리채를 잡힌 고통에 마키가 비명을 질러도 무감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마키를 박스 안으로 집어넣었다. 분명 잘못은 저 배달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건 마키뿐이었다. 저, 저 주인 있어요!! 저 일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물론 배달원은 마키와 여러 수호신을 실은 트럭의 시동을 거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쑥쑥 거리는 바람 소리와 바퀴 소리만이 고막을 잠식했다. 시야가 가려지자 낮선 소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 배달원이 트럭에서 박스를 끄집어낼 때까지도 엉엉 울던 마키는 갑자기 둔탁하게 엮어진 박스 어딘가에 머리를 박고 장렬하게 기절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들은 것은 초인종 소리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와, 박스 진짜 크다. 감탄하는 여자 목소리. 딱 들어도 과시욕 하나 충족하기 위해 수호신을 장만한 인스타 셀럽이리라 짐작되는 하이톤. 마키는 머릿속으로 지원의 이름을 수십만 번이고 불렀다. 한번쯤은 수호신이란 주인 역할 반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수호신 하나가 주인을 둘씩 두는 일이 희귀하다거나 불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키는 성격상 딱히 부지런하지 못했고, 사람 하나의 사연에 아주 깊이 과몰입 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본 주인인 지원의 서사에 깊이 빠져들어 버린 상태인데 다른 주인에게 몰입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마키는 눈을 뜨자마자 새 주인 될 사람에게 상황 설명부터 할 생각이었다. 계약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 시간은 많으니까. 설득이라도 해 볼 생각이었는데. 눈을 뜬 마키는 제 눈앞에 펼쳐진 이미 사인이 된 계약서와 빈백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수호신 센터 스태프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주인은 성격이 많이 급하구나. 눈치껏 계약서를 훑어보며 새 주인의 이름을 외웠다. 원혜주. 원, 혜주. 혹여 잘못 부르는 일이 없도록 머릿속에서 꼭꼭 씹어 발음했다. 그건 사랑과 신뢰를 밑거름 삼아 영생을 사는 수호신의 본능이었다.

급하게 부른 센터의 스태프는 누가 보아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 틀림없었다. 보나 마나 손님들 불평불만 듣기 싫어서 제일 만만한 막내나 보낸 거겠지. 아무리 어려도 몇십 년 동안 센터에 박혀 무럭무럭 성장기를 보냈던 마키의 눈에는 뻔했다. 가슴에 꿰어 단 명찰도 삐뚤고, 자꾸만 입술을 씹는 것으로 보아 길어봤자 출근한 지 삼 주 정도 되었을 것 같았다. 다만 혜주가 이러한 센터 구조에 대해 알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환불 안 된다고요? 고객님의 환불이 아니라 계약 파기... 마키는 혹여 새로운 주인이 뭔가 던지며 화라도 낼까 싶어 빠르게 스태프의 앞을 막아섰으나 주인은 답답해 미치겠는지 눈알을 까뒤집다가 겨우 본인 뺨이나 한 대 내려쳤다. 아오 원혜주 미친 새끼, 중얼거리는 품이 상당히 제정신은 아닌 듯해 보여서 마키는 마른침

을 꿀꺽 삼켰다. 밍보였다간 용이고 나발이고 잡아먹힐 것 같았다.

새 주인은 누가 봐도 이해 안 된 표정으로 알겠으니까 일단 가보세요, 했다. 도대체 뭘 알겠다는 건지. 마키는 자신이 뽀은 새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용인 상태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었는데 도리어 주인은 더욱이 썩은 표정을 했다. 이쯤 되니 좀 억울해지기도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타고나길 피지컬 잘빠진 용이라 납치에 가까운 길거리 캐스팅 당해버린 걸 나더러 어찌라고. 마키는 바닥을 굴러다니던 후드티를 주워 입으며 입술을 빠죽 내밀었다.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지. 그래야 살아남는다.

“너 모지원 수호신이야?”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키의 머릿속에는 결눈질로 훑쳐본 수많은 막장 드라마들이 스쳐 지나갔다. 카페 창가 자리에서 여자 주인공과 독대하던 웬만한 남자 주인공 엄마 캐릭터보다 눈빛이 사나웠다. 당장이라도 돈봉투 내밀면서 내 아들이랑 그만 만나라고 할 것 같은 불타는 눈동자. 마키는 저도 모르게 소매를 늘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떻게 아셨어요? 앞뒤 맥락 다 생략하고 물었다가 당장 입을 틀어막았다. 질문 하나도 이렇게 바보같이 하는 수호신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놀랍게도 그게 이 집에 들어와 처음 낸 목소리였다. 그리고 인간은 대부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건네는 첫 마디를 첫인상과 직결시킨다. 어쨌거나 이 주인과의 계약 그리고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임은 이미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기도 전에 마키는 뒤탈라오는 새 주인의 대답을 들어버렸고, 일전의 생각들은 아주 말끔히 지워지고 말았다.

아, 그게.

개가 내 전 남친이거든.

마키는 몇 초 지나지 않아 입부터 틀어막았다. 그리고 보니 현관 창문 너머의 원목 도어벨이 소름 끼치게 낮익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쉴 틈 없이 얼얼거리던 집에 이제는 드나들기까지 하게 되다니. 놀라워하다가도 눈앞에 놓인 계약서를 보면 입꼬리가 자동으로 내려갔다. 아는 사이가 되면 개입하기 쉽긴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키가 지원의 수호신일 때의 경우였다. 팔자에도 없던 이중생활이 느닷없이 펼쳐지게 될 상상을 하니 눈앞이 새까맣졌다. 심지어 그 둘이 깨진 지 일 년도 안 된 X커플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골치가 아팠다.

와중에 마키는 평소 부르는 것처럼 지원 오빠라고 칭하지 않은 자신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이게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다는 절체절명의 초능력인가. 마키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새에 새 주인은 대놓고 마키의 바로 앞에 짹다리를 짚고 섰다. 본격적으로 취조하겠다는 몸짓이나 다름바 없었다. 차라리 울고 싶다. 저 다시 박스 들어갈 테니까 계약이고 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빌고 싶었으나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아를 가진 개체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누가 맹수이고 누가 먹이인지 알아챈다. 마키는 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포식자는 절대 될 수가 없다.

“하나만 묻자. 개가 너한테 빈 소원이 뭔데?”

“...전 여친 망해라, 요.”

“장난치지 말고.”

마키의 새 주인 관찰일지. 이름 원혜주. 나이 스물일곱, 직업 소설가. 거실부터 방까지 책이 가득이길래 때려 맞았는데 정답이었다. 특징은... 단정 짓는 성향이 강함. 마키가 장난스러운 인상인 건 맞지만 그게 성실도와 직결된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좀 억울해지려 했지만 이마저도 해주

의 수호신이 된 이상 견뎌야 할 일이다. 직업 만족도 높은 편인 마키는 쉽게 순응했다. 출생한 것이 아닌 만들어진 존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수호신 센터에서 가르치는 제1 철칙. 고요하게 되뇌며 해주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1초 만에 후퇴. 영생의 수호신을 이겨 먹는 인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센터에서 해준 적 없었다. 저 여자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한눈팔지 말고 나 봐. 사나운 목소리에 퍼뜩 고개를 든 마키는 차마 해주의 눈동자까지는 쳐다보지 못하고 살짝 비켜난 옆자리의 어항을 바라보았다. 애매하게 찰랑거리는 수면 언저리에 하얀 금붕어가 둥둥 떠 있었다. 죽은 건가, 생각할 때쯤 움찔 움찔여 생사를 확인시켜 주긴 했지만, 확실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다. 수초와 자갈이 꽤 자연스러운 구도로 배치된 것을 보아 해주는 어항 가꾸는 데에 진심인 것 같았다. 마키는 절묘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항을 관찰했다. 수초에 달팽이 있어. 푸념이 끝나면 말해 줘야겠다 생각도 하면서.

“개 분명히 나한테 잘 살라고 그랬는데.”

“사랑했던 사람 면전에 대고 저주 퍼부를 양반은 못 돼요.”

“맞긴 해. 근데… 개 살아가는 있냐?”

와중에 전 남친 걱정. 마키는 순간 자신이 연애 프로그램 패널이라도 된 줄 착각할 뻔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리액션을 뱉을 뻔했다가 혀를 씹으며 겨우 참아냈다. 아무리 그래도 헤어진 지 몇 주도 안 된 연인인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밥도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며 죽어가고 있다고 전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마키는 알고 있는 것 중 그나마 친절한 언어를 고르고 골라 지원의 근황을 전했다.

그리고 동시에 직감했다. 마키는 얼떨결에 체결해버린 해주와의 계약을 절대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건 또 다른 사연의 침입이 아니라, 이미 마키가 몸 담고 있던 지원의 사연 중 알려지지 않았던 스펀오프라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술했다시피 마키는 사람 하나의 사연에 너무 깊이 과몰입 하는 경향이 있다. 오타쿠된 도리로서, 운 좋게 발견한 히든 스테이지를 깨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씨발, 야 이거 너지.”

“언니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숨기는 성의라도 좀 보여라 넌 좀.”

해주는 빈백에 웅크려 앉은 마키의 등짝을 발로 쿡 찔렀다.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에 해주의 이름을 검색해 두고 책마다 하나하나 악평을 꼬적이다 딱 걸린 참이었다. [id: makii02 완전 노잼 최근 산 책 중에 젤 집중 안됐어요 다 읽는 데 일주일 걸림] 해주는 핀잔이나 조금 줄 뿐, 웃긴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내버려두었다. 어리고 동그란 수호신의 어리숙한 모습을 좀 재밌어하는 듯했다. 마키가 단 리뷰 댓글에는 좋아요 6, 싫어요 24, 답글 37. 마키는 조금 시무룩해진 얼굴로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했다. 해주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혀를 차면서도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던져주었다. 조금 웃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눈을 마주치자마자 해주가 다시 싸한 표정을 지었다. 뭘 봐.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수호신이라는 거 그냥 뽕이지. 해주의 말에 마키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키는 핸드폰을 열심히 두드리더니 수호신 센터 홈페이지의 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상품명 makii02 제조 일자 2032년 10월 2일, 아래에는 마키의 세 번째 주인

인 지원의 리뷰가 작성되어 있었다. 별 다섯 개. 뿌듯하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들이미는 마키의 표정과 는 무관하게 혜주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사람을 무슨 상품 취급을 해. 하면서도 혜주는 지원의 리뷰 아래에 빈 하트를 눌러 빨간색으로 채웠다.

“사람이 아니긴 해요, 상품인 것도 맞고.”

마키는 상처에 예민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지만 정작 자신이 상품이라는 사실에는 꽤 무던했다. 마키의 기억은 신체가 창조된 순간이 아니라 자아가 발생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마키는 자신이 만들어진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뼈가 자라나 골격이 생기고 살이 돌아나고 푸른 비늘이 입혀지는 모든 순간. 눈알을 뜨고 첫 주인을 마주하고 이름이 생기는 모든 순간이 마키의 머릿속에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은 꽤 감격스럽지만, 그게 전부 기억 속에 있다는 것부터가 마키의 존재가 평범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혜주는 눈살을 찌푸린 채 핸드폰을 돌려주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지원 저 새끼 텍스트 말투 너무 그대로야. 짜증 나. 탄소리를 내뱉으면 마키는 미움받던 조금 전 일도 잊고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빈백이 기우뚱 넘어가더니 마키의 몸이 뒤로 굴렀다. 이번엔 혜주가 웃음을 터뜨렸다. 분명 마키는 이 집에 온 이래로 혜주에게 득이 된 일이 없다. 그러나 혜주는 확연히 웃음이 많아졌다. 그건 마키가 가장 빠르게 알아챘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니까.

이야기는 혜주의 집에서 잠들고 일어난 첫 아침부터 시작된다. [이틀 뒤에 동창회 있다는데 확 취소되게 해주라. 나 진짜 가기 싫단 말이야…. 가능?] 그리고 글귀 아래에 그려진 진짜 어색한 스마일 이모티콘. 머리맡에 놓인 쪽지를 발견하자마자 마키는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로 요구하는 게 보통의 경우라지만 혜주는 성격상 제 욕심을 뽐뽐히 요구하기를 어려워했다. 마키는 그걸 꽤 빠르게 알아챘고, 그래서 즐았고, 동시에 열이 확 났었다. 혜주의 첫 번째 소원이 적힌 그 쪽지는, 앞으로 펼쳐질 혜주의 사연에 있어서 나쁜 역할은 오로지 마키의 몫이 될 거라는 암시이기도 했다.

아침 조깅을 끝내고 돌아온 혜주는 빨래 바구니 옆의 작은 쓰레기통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성의 없이 구겨진 노란 포스트잇. 눈치가 보이긴 해서 몸 크기를 줄이고 모래시계 안에 꼭 숨어 있었는데 당장 달려온 혜주가 뚜껑을 열고 모래시계를 확 뒤집어버렸다. 안에 고인 물이 바닥에 흘러지고, 시퍼렇고 커다란 용이 체리 물딩이 된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물을 쏟아버리면 어떡하냐고 울상 지으려던 마키는 혜주의 눈빛에 당장 무릎부터 꿇었다. 소원 못 들어준다는 게 이런 뜻이었어? 뜻밖에도 혜주는 어이없게 웃는 얼굴이었다. 뭐 하는 새끼인가 좀 흥미로워하는 듯한 표정. 마키는 최대한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미워하는 소원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마키가 중얼거렸다. 여태껏 마키의 주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공을 빌어왔다. 로또 당첨이나 주식 떡상이나 대학 면접 합격 같은. 그게 아니면 하늘을 날거나 공주님이 되거나 호박 마차를 타는. 그걸 이뤄주는 데에 누군가를 방해하고 싫어하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고, 원한 적도 없었다.

저도 이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소원이라잖아요. 그러구… 어차피 딱 두 달 남았어요. 저랑 오 년 넘게 지내면서 말한 소원 한 손으로도 꿈꿀 수 있는데 이게 그중의 하나예요. 오빠, 아니지 주인 집에 얹혀산 은혜가 있어서라도 이제 와서 포기는 못 해요.

울상을 지으며 말하자 이제 혜주는 조금 안쓰럽거나 아니면 아예 끔찍한 무언가를 보는 표정이 됐다. 고개를 갇힌 채 한껏 인상을 찡그리고 마키를 쳐다보았다. 어깨 너머로 어항의 수면이 넘실거렸다. 마키는 차라리 그 아래로 빠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모래시계 안에서

찰박이는 손바닥 크기의 용이 되어서. 그러면 적어도 저런 표정으로는 안 쳐다보지 않을까.

“아니면요, 그냥 제가 나갈까요.”

아마 계약 파기하려면 이미 오래 지낸 쪽보단 이제 막 한 쪽이 편할 거예요. 마키의 말에 지원의 미간이 더 짙게 찌푸려졌다. 도대체 뭐가 문젠데.

“...됐어. 그냥 있어. 어차피 빌 소원도 없어.”

“그게 말이 돼요?”

“방에 보일러 켜두라는 것도 소원으로 빌어야 하나?”

나 씻고 올 거니까 보일러 켜놓고 부엌에 불 꺼. 물고기 밥도 좀 줘. 손가락으로 한 번 꼬집어서 뿌리면 돼. 해주가 화장실로 사라졌고, 마키는 그렇게 했다. 물고기 사료를 손가락으로 집어 뿌리려다 말고 잠시 고민하기는 했다. 지원은 해주의 일이 잘되지 않기를 빌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방해해야 하는 거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이 안 풀린다는 티가 나려면 해주가 빈 소원을 무시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견저 사람 소원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동거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해주의 기상 후 루틴은 무조건 물고기 밥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재수 없어 태평한 것들 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너넨 먹고 싸고 헤엄만 치지 좋겠다 난 집에서 일해서 퇴근도 못 해. 악독한 말을 리듬감 있게 중얼거리며 먹이 한 꼬집을 뿌렸다. 지긋지긋한 푸념 메들리가 끝나면 얼마 전 추가된 루틴 하나를 수행한다. 웬만한 인간보다 잠 많은 용 깨우기. 리본 모양으로 따리를 튼 용에게 쿠션을 집어던지고 으하학, 웃으며 도망친다. 아 언니 제발요오!! 당장이라도 눈물 이모티콘을 달고 쫓아올 기세인 마키가 한숨을 쉬며 이불을 도로 덮었다. 처음엔 진짜 호랑이 산신만큼 무서운 인간이라고 벌벌 떨었는데, 며칠 살았더니 그냥 아침 출근에 열받아서 동거하는 고딩 깨우고 가는 폰수대기 언니랑 다를 바가 없다.

해주가 물고기 밥 주기와 마키 깨우기를 끝내고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가는 것이 마키의 아침 루틴 시작 신호였다. 마키의 고정 자리는 어항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놓인 작은 의자였다. 사람들이 왜 물명을 하는지 알 것 같달까. 마키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뼈끔거리는 금붕어의 주둥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이트 베타, 자이언트 구라미, 알비노 시클리드, 피치 레몬 테트라. 알고 있는 흰색 물고기의 종류를 하나씩 천천히 머릿속으로 읊어보았지만 비슷한 생김새는 아니었다. 울렁울렁 물결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땀범벅으로 귀가한 해주에게 인사도 없이 물었다. 이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백난주. 백난주, 사람 이름 같다. 난주야.

원래 그 어항에는 물고기가 바글바글 많았다고 했다. 백난주 다섯 마리에 하프문 베타 세 마리, 코리도라스 세 마리에 새우까지. 해주가 첫 자취를 시작한 스물두 살, 지원이 집들이 선물로 어항을 사 온 게 시작이었다. 해주는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마키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인정하긴 싫지만 해주가 지원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본래 말소리의 데시벨이 60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다. 인생이 ASMR이라고 매일 놀려뒀던 게 기억나서 해주에게 이야기했더니 포복절도했다. 알고 보니 연애했던 시절 해주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던 말이었던단다. 웃으면서 그 말을 하다가 해주가 우뚝 멈추고 정색을 했다. 아마 그 시절 해주는 그딴 시시한 말을 하면서도 지원을 끌어안고 있었을 것이다. 징글징글하게.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은 분명히 이어져 있다. 지원과 오 년 가까이 사

랑을 한 사람과, 지원과 오 년 가까이 산 수호신. 마키는 사랑과 삶이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니 우리의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원과 हे주는 함께 수족관 데이트를 간 적이 있었고, 그때 헤주가 푸른색 하프문 베타를 보고 훌쩍 반해버렸다고 했다. 지원이 그걸 기억해두었다가 예뻐 보인다 싶은 애들을 전부 데려왔는데 이들도 안 지나서 백난주 지느러미가 반절이 뜯겼다. 뒤늦게 인터넷에 찾아보니 금붕어랑 베타는 합사가 어렵다고 했고, 원래 같으면 금붕어가 죽어라 괴롭힘당하다 죽었을 텐데, 쪽수가 후달려서 그랬는지 베타가 냉큼 먼저 죽어버렸됐다. 순식간에 공허해진 어항을 청소하던 코리도라스도 머지않아 죽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겨우 백난주 한 마리만 남아있었다.

“어항에 이끼 안 닦으면 애 죽어요?”

“음, 아니. 근데 닦아야 돼.”

“왜요?”

“코리도라스가 죽었거든.”

코디 뭐요? 헤주는 대답도 해주지 않고 어항을 멍하니 바라보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헤주가 가끔씩 저렇게 로맨스 드라마의 청승맞은 여주인공처럼 굴 때마다 마키는 소름이 끼쳤다. 다만 눈치가 빠른 덕에 저 징글징글한 독백을 일부러 깨뜨릴 마음은 먹지 않았다. 조용히 입을 닫고 구글에 검색한 뒤에야 그게 벽면에 착 붙어 이끼를 먹는 물고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고온에 약해서 여름에 쉽게 폐사한다는 것도. 마키는 가만히 어항 속에서 돌아가는 상면 여과기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마키는 하라는 대로 어항 벽면을 박박 닦았다. 음, 오늘의 물명은 좀 더 선명하고 말끔하겠군. 깨끗하구 좋다. 애써 좋을 대로 생각하며.

마키는 타고나길 섬세하고 다정한 편이다. 아마 타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여서겠지. 수호신을 창조하는 센터에서는 유전공학과 세포 조작 등 잡다한 기술을 융합하여 수호신을 만들어냈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만족을 제1의 목적으로 두었다. 마키는 나이가 어려 다소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실적 대비 낮은 레벨을 부여받았으나, 그 점이 마키에겐 오히려 가산점 요소였다. 놀리면 곧장 울상 짓고 칭찬하면 막 좋아하고, 귀엽잖아. 대체로 인간은 귀여움에 약하다. 작고 소중한 걸 보면 인간들 머릿속은 쑥대밭이 된다. 핑크색 펄이 가득한 폭죽이 펄펄 터져 난장판이 된다. 휴, 어리고 귀엽고 파래서 다행이야.

그러다가 마키는 딱 하나 남은 백난주를 바라보았다. 하늘하늘 흩어지는 레이스 같은 하얀색 지느러미는 군데군데가 뜯어져 후드득 아래로 떨어진 모양새이다. 그것을 멍하게 쳐다보다가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 묘한 경쟁의식이 돌아버리는 바람에 팔 한 쪽에만 치렁치렁 지느러미를 드러내 보기도 했다. 묘한 반짝거림이 섞인 푸른색 지느러미. 포장지에 엄청 순한 성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강조된 물티슈를 꺼냈다. 결을 따라가며 지느러미를 닦고 다시 집어넣었다.

헤주의 집에 온 이후로 유독 외모 관리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하루에 세 번씩 샤워를 하고 밤마다 지느러미와 비늘을 닦는다. 어항 앞에 가만히 앉아서 고요한 백난주를 따라 지느러미를 펄럭펄럭. 그러다가도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잔뜩 새빨개진 채 방 안으로 숨어버리고 만다. 그게 카미의 자기 전 루틴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에서 제 역할이 이 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치밀었다. 스스로를 가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쁜 것마저도 못하면 쫓겨날까 봐. 쓸모 없어지는 건 싫으니까.

음, 사실은 욕심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 무덤덤하고 싸가지 없고 진짜 안 웃긴 새 주인이, 자기를 보고 핑크색 펄을 펄펄 터뜨렸으면 좋겠다. 소원은 이뤄줄 수 없지

만 좋은 수호신으로 남고 싶은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좋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용이 되어야지. 그리고 살다 보니까 원해주라는 사람도… 꽤 좋은 사람이길래.

[음 오빠] : 마키♡

[혹시 금붕어 먹이 원지 알아?] : 마키♡

[사진 2장을 보냈습니다] : 마키♡

당연히 안 볼 줄 알았는데 화면을 끄기도 전에 1이 사라졌다. 확인은 했는데 답이 없는 걸 보고 모지원이 입씹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잠시 놀랐고, 다음으로 구글에 들어갔다. 카메라로 먹이 통 사진을 찍고. 어떻게든 답이 나오겠지. 점 세 개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검색 로딩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빠르게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방 안쪽에서는 샤워기가 싹아아… 수도세 쏟아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익숙하게 컨버스로우 벗고 거실로 들어간 지원이 푸른 뚜껑 달린 먹이를 빼앗아 어항에 뿌렸다.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오는 난주를 보다가 빈백에 털썩 앉았다. 마키는 그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잠시 허둥거렸다.

지원은 뜻밖에도 태평했다. 제 발로 전 여친 집에 찾아온 패기가 아직 안 가셨는지 꽤 뻔뻔했다. 티비 채널을 획획 돌리다가 영화 리뷰 채널에서 송출하는 타이타닉을 보고 멈췄다. 한참을 어버버 거리던 마키가 겨우 완성시킨 문장은 “여길 왜 왔어?”였다. 진짜 멍청하게. 지원은 마키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 샤워기 소리는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멈췄고,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방 안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덜컥 들리자 그제서야 지원이 마키를 흘깃 쳐다보았다. 별거 아닌 걸 보는 것 같은 지원의 표정은 마키에게 처음이라 충격을 줬다.

“네가 내 소원 무시하는 건 처음 같아서.”

마키는 지원에게 물고기 먹이를 물어본 자신을 원망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세계 쥐어박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멍청한 수호신이 될 것 같아서 참았다. 그래, 까먹고 있었지. 백난주는 지원이 해주에게 준 거였다. 외롭지 말라고. 외로운 건 싫지만 시끄러운 건 더 싫어하는 해주에게 지원이 준 거. 누구보다 해주를 잘 알던 사람이었을 테니까. 전 애인 다시 데려오라고 보내놓은 수호신이 그 물고기 밥 챙기는 거 보면서 얼마나 배알이 꼴렸겠어. 마키는 머리를 굴려 지난날을 열심히 회고했다. 나 너무 시끄러웠으려나. 역시 저 물고기가 더 나았으려나. 만사가 피로한 원해주한테는. 역시.

지원은 얼이 빠져 굳은 마키를 내버려두고 안방 문을 열었다. 다 씻고 나와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해주가 마찬가지로 굳었다. 물론 걸은 좀 달랐지만. 뭐야 이 미친 새끼는, 하는 표정으로 지원을 쳐다보던 해주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랑곳하지 않은 지원은 여유로운 자세로 안방 문에 기대었다. 해주야, 계약 끝자. 재 나한테 필요해. 밀도 끝도 없이 그딴 소릴 했다. 그 말에 퍼뜩 정신을 차린 마키가 달려가 지원의 입을 막으려 하자 지원은 주머니 안에 움푹 들어있던 모래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후루룩 멋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용으로 평 변해버린 마키가 물속으로 잠겼다. 모래시계 안에 찰랑찰랑. 아, 짜증나.

지원은 마키가 갇힌 모래시계를 어항 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싸울 태세를 갖췄다. 그래봤자 문 옆에 기대어 고고하게 짹다리를 짚고 선 게 다지만. 마키는 그 꼬라지를 지켜보며 미래를 점쳐보았다. 저래 봤자 원해주한테 20분 컷으로 지고 올면서 집 나간다는 금 간 모래시계를

건다.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어차피 너한테 앤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애가 네 뭘 들어줄 수 있는데? 수호신이라는 애가 네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못 들어주는데 데리고 살 이유가 있어?”

“뭐하긴, 내 애기 들어준다. 넌 눈 막고 귀 닫고 안 들어준 거.”

마키는 혼란스럽다... 믿었던 (약) 6년짜리 주인이 코앞에서 제 뒷담을 까고, 이제 막 동거 2주차에 접어든 두 번째 주인이 거칠게 제 편을 들어주는 걸 본다. 저러다 지원이 한 대 맞을 것 같은 예감이 세게 들어서 사이를 막아서고 싶었으나 모래시계는 시시하게 덜그럭거릴 뿐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부글부글 끓는데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가 쟁그랑 부서질 순 있어도.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저 둘의 싸움 같았다. 지원이 들숨 쉴 때마다 쿵쾅, 효과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키는 모래시계의 가장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지느러미로 귀를 틀어막았다. 다만 다소 울렁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에 푸른색 지느러미는 많이 얇았다.

마키가 보기에도 지원은 마음을 많이 쓴다.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나 부르라며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 마키는 6년 가까이 살며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자주 부담스러웠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사랑이고 나발이고 저러다 자기가 제일 먼저 죽겠는데.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찌질한 마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가 있다. 원해주라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너무 솔직한 바람에 매일 같이 호감도 죽죽 깎이기만 하는 여자.

“넌 사람 좋아하는 걸 그딴 식으로 하나?”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는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진짜 안 미안한데 우리 그냥 남이야.”

마키가 미간을 있는 대로 찌푸리고 있으니 해주가 방에서 나와 모래시계를 집어들었다. 모래시계를 자칫 부서질 것처럼 짹 쥐고 있는 해주의 손까지 통째로 어항 안에 잠겼다. 이미 풍덩 빠져버린 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모래시계 안에서만 버둥거렸다.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맙긴 한데, 뚜껑 틈으로 비질비질 새어나가는 모래시계 속 파란색 물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그, 주인이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난주 죽는다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을 벌릴 때마다 어항 속 물이 울퉁이며 들어왔다. 한 번은 잘못 삼키는 바람에 킁킁 기침만 반복했다.

푸른색이 어룡거리는 물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무의미할 뿐이었다. 금이 간 모래시계의 유리 벽 너머로 난주가 보글보글 공기 방울을 만들었다. 가쁘게 쉬는 숨 사이로 푸른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지원이 어항 앞으로 휙 지나갔다. 진짜 20분 컷이었을까 궁금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감각할 수가 없었다. 나 진짜로 속으로 모래시계 걸었는데. 지원은 컨버스로우를 구겨 신은 채 나가버렸고 난주는 어항 바닥에 조용히 쓰러져있었다. 여과기가 돌아가면 이따금씩 움찔거리긴 했지만 생기 있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해주는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키는 햇볕에 피부 표면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 거슬려 잠에서 깨었다. 햇살이 아무 필터링 없이 내리쬰는 베란다에 푸른색 용 한 마리가 대자로 널브러져 있었다. 언니야, 제발 이 미친 아... 욕을 씹다가도 빨래 건조대에 안 널어둔 게 어디냐 싶어 한숨 정도로 마무리했다. 유리문

을 열어젖히고 들어오면 거실은 아무것도 부서져 있지 않은 채 말끔했다.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는 높이가 다른 짹짹 양말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채였다.

다 꿈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누워있던 베란다 바닥에 못 보던 화분이 하나 놓여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화분 가운데가 조금 볼록 솟은 걸 보고 저 안에 있는 게 무엇일지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울렁울렁 여과기가 계속 작동하는 어항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어항 위 조명이 툭 켜지고 먹이를 챙기느라 맞춰둔 알람이 웅웅 울리지만, 집 안에서 그에 맞추어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키는 혹여 알람 소리를 듣고 혜주가 깰까 싶어 서둘러 알람을 끄고 여과기의 작동을 멈췄다.

그리고, 적막한 아침을 깨는 초인종 소리. 지독하게 잠귀가 어두운 편인 혜주는 깨지 않았고 대신 마키가 문을 열었다. 익숙한 푸른색 모자, 익숙한 유니폼에 익숙한 마크. 꽤 고참쯤 되어 보이는 수호신 센터 스태프가 어디 설문조사라도 나온 것처럼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마키 2호 맞죠? 여긴 원혜주 씨 덕이고요.”

“...아, 네. 맞긴 한데 무슨 일이신데요?”

“모지원 씨가 수호신 계약을 끊었어요. 알람 온 게 자정이었으니까, 얼마 안 되었네요.”

계약 끊으면서 모래시계 분실 신고를 동시에 하셨더라고요. 정식 등록되어 있는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서 방문했습니다. 지금 원혜주 씨 개인 수호신으로 신규 등록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모래시계 새로 맞춤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커스텀 추가금까지 포함한 비용은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나마 잘 들렸던 부분은 지원이 계약 취소와 모래시계 분실 신고를 같이 했다는 거, 그리고 모래시계 비용 다 지원해 준다, 정도. 그냥 후다닥 도망치고 만 줄 알았더니 지원이 그래도 알아챘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진짜 싫고 징그럽고 해도 이게 장기 연애의 짬밥이라는 건가. 좀 주눅이 들기도 했다. 멍청한 수호신 어찌고 했던 자학의 연장선상일까. 원래 이 나이엔 쉽게 땅굴도 파고 그런 법이더라.

스태프가 문을 닫고 떠난 후, 마키는 베란다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리저리 모래시계 디자인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로가 단순해서 반짝반짝한 커스텀 창을 보자마자 뇌를 전부 빼앗겼다. 와, 이왕 새로 맞추는 거 진짜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었다. 안에 물도 핑크색으로 채워 넣고. 웬 산호초 장식 같은 게 있길래 그것도 옵션으로 추가해 보고. 추가 비용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눈으로도 보였지만 일단 결제 수단은 혜주의 카드로 등록되어 있으니 알 바 아니었다. 그러다가 덜컥, 소리가 나는 것을 듣자마자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자는 척을 했다. ...그러고 보니 용으로 변신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자는 척 그만할까.

혜주는 아침 조깅을 하려는지 어느새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은 상태로 거실을 활보했다. 어항의 여과기를 떼어 내고 안에 물을 전부 쏟아버렸다. 분리수거함 옆에 유리 어항을 내려놓고 어젯밤에 못 한 설거지를 대충 하다가, 베란단을 옮길. 신성한 최초의 인간 아이마냥 햇빛이 내리쬐는 베란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마키를 보고 폭, 웃는 소리를 냈다.

“아 언니 진짜!!”

“성질부리지 말고 일어나라 고딩. 해가 중천에 났는데.”

“학교나 보내주고 고딩이라고 부르던가요. 시킬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깨우는 거야?”

“나만 일찍 일어나면 억울하잖아.”

“진짜 열 받네.”

좀 누워 있었다고 그새 까치집 비슷한 게 생겼다.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빗으며 일어나니 혜주가 종일 싱글벙글이었다. 전날 뒤지게 싸우더니 낮빛이 이상할 정도로 좋았다. 마키는 어항 속에서 보글보글 공기 방울이나 만드느라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원은 2주 남은 계약을 냅다 끊어버렸고, 혜주는 마키의 원앤온리 주인이 되었다. 마키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덕지덕지 화려한 커스텀 모래시계의 결제 버튼을 마저 눌렀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정보랑 배송 위치까지 확인 완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마키의 무릎을 발로 툭 건드린 혜주가 고개를 까딱였다. 나 다녀올 테니까 저거 어항 좀 갖다 버리고. 오는 길에 마트 가서 식빵이랑 우유 좀 사 와. 마키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투덜거렸다. 사실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귀찮은 걸 어찌라고. 아침 여섯 시 이십 분에 심부름 시키는 주인이 잘못이야, 잠도 덜 깨고 찡찡거리는 수호신이 잘못이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테지만 잘잘못을 따져 보려 혼잣말을 시전했다.

주인이 소원 비는데 수호신이라는 애가 일도 안 하나? 하여튼 저거 몇 주 일 없이 놀아줬더니 빠져가지고, 너 이거 근무 태만이야.

확실히 혜주는 눈치가 빨랐다. 어떻게 하면 어린 용이 힘차게도 파는 땅굴을 막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 작가가 아니라 여고 담임을 했어야 했을지도. 소원 빈 거였어? 그럼 말 좀 제대로 하지. 부러 톡톡거리며 말하면서도 단순한 마키는 기분이 좋아졌다. 여기저기 간 봐가며 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쓸모 있는 수호신. 좋은 용. 다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주인이 있는 몸이었음에도 마키는 취업 성공의 쾌감을 느꼈다.

혜주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마키는 총알처럼 달려나가 어항을 집어들었다. 축축하게 젖고 뚜껑이 일그러지고 금이 간 모래시계가 어항 바닥을 굴렀다. 잠시 망설이다가 빼내지 않고 통째로 들고 집을 나섰다. 오래 된 빌라의 분리수거장에는 유리 버리는 곳이 없어서 꽤 멀찍한 곳으로 나가야 했다. 용으로 변해 훌쩍 비행하면 몇 분 걸리지도 않을 거리지만 혜주의 컨버스하이를 훔쳐 신고 뚜벅이며 걸었다.

과물입은 악습이 아닌 특권이다. 마키는 이미 혜주의 온갖 사연에 흠뻑 빠져들어 버린 상태였다. 그 서사 사이에 툭 튀어나온 말 없는 모지원이나 말 안 통하는 백난주 같은 건 알 바가 아니다. 어찌면 혜주를 외로울 틈 없이 데굴데굴 굴려줄 수 있는 건 마키가 유일무이할지도 모른다. 혜주가 좋아하는 평화로움이나 조용함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겠지만...

그건 그냥 좀 빨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소원은 접수.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이제야 보여주네.

혹시 본업 잘하는 사람... 좀 호감인가? -마키 씬!